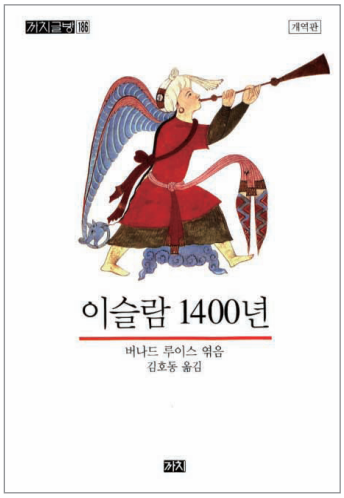

제목	이슬람 1400년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까치글방
발행일	2010. 3. 10.
저자	버나드 루이스 엮음 김호동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544
ISBN 또는 ISSN	978-8972913023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의 신앙, 역사,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축적된 업적들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문명사다. 이 책은 이슬람 신앙과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소개하는 서론으로 시작하여, 1장~8장에서는 이슬람의 위대함이 가장 잘 나타난 7세기 이슬람의 출현부터 13세기 몽골인들에 의한 정복 이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저자가 이 장들에서 중점을 둔 주제는 이슬람의 예술, 이슬람적 도시의 모습, 신비주의, 문학, 음악, 과학, 전쟁기술과 무기에 대한 것이다. 1장~8장 중 1장을 제외한 7개의 장에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9장~12장은 스페인, 이란, 오스만, 인도에서의 이슬람을 다룬다. 마지막 13장에서는 18세기 이후 이슬람 세계가 서구로부터 받은 충격과 그에 대한 대응과 저항의 모습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이란은 이슬람 세계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나라로 다루어진다. 이란은 아랍인의 정복과 그로 인한 이슬람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적 고유성을 유지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와 사회에 기여했으며 이슬람 종교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이슬람 신비주의의 탄생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시아 이슬람을 탄생시켜서 이란의 공식 종교로 발전시켰고, 이슬람이 중앙아시아로 확장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저자는 이슬람 문학, 과학, 예술의 발전에 이란의 기여는 이슬람권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한다.